

로마서: 믿음의 삶

3주: “ 나쁜 사람이 되는 좋은 소식 ”

로마서 1:18-32

브래드 목사

- 저는 이 메시지의 서문에 제 의제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 저는 지난 25년 동안 제가 목회해 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정치적 의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의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취하여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충실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 그게 제 일정입니다.
- 저는 단순히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구절이 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서서 가르칠 때마다 제 의제나 소망에 대해 정말 명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 지금.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 제 경험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 그러나 아무도 이 구절이 진정한 의미를 의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균중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최근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합니다.

- 사람들은 수치심, 분노 또는 좌절감을 말합니다.
-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답이 아닙니다.
- 틀리는 것은 옳다고 느끼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틀렸을 때 누군가가 지적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람에 대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 자신이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과 로마 교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생생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가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 그는 그들에게 “사람들은 실제로 틀렸을 때 옳다고 느낀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 이제 질문은 그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그리고 여기 거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문자뿐만이 아닙니다.
- 이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즉, 쓰여진 것은 우연도 아니고 흥미도 없고 좋은 문학도 아닙니다.
-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이며, 우리가 처한 상황의 현실입니다.
- 무거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합니까?
- 실제로 나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우리가 보게 될 이 모든 잘못이 실제로 우리가 좋은 점을 발견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 이제 그가 진노에 대해 사용하는 그리스어 단어 - 오르가이

- 그것은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 즉, 하나님은 약간 화를 내시지 않고 안경 너머로 우리에게 안주하라고 하십니다.
 - 이것은 화나심입니다.
 -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 하나님은 심술궂거나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 이 구절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를 가리킵니다.
-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 *이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숨기고, 채우고, 제거 합니다.*
 - *우리는 그것을 밀고, 포장하고, 부수고, 뺏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고, 그것은 기어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튀어나옵니다...*
 -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합니다.*
 -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에 대해 진실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억압합니다.
 -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사실인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듣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억누르며..하나님의 진노가 증가합니다.
 -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은 방어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9-20

19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20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 어린아이의 천진함에서 장엄한 봉우리, 바다 위의 노을까지 멀리 바라볼 필요도,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향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억누릅니다. 어떻게 진리를 억누를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 바울은 계속해서 매우 생생하고 선명한 그림을 그립니다.
- 그리고 그는 패턴을 개발합니다.
- 특정 단어가 세 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는 일이 세 번 나옵니다.
- “Exchange 거래. 교환”라는 단어가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 우리에게 좋은 것, 사실인 것이 있고 카운터에 다가 가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꿉니다.
- 바우로는 당신이 좋은 것을 절대 아닌 것과 교환했다고 말합니다.
- 첫 번째 교환, V.21

로마서 1:21-23

21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23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 첫 번째 교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헛되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바보가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환합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재창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결정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셔야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 우리는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분류하기로 결정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교환합니다.
- 누군가가 “나는 ... 또는 " 나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신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참되다고 알고 있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교환 했습니다.
- 진리가 시작되고 끝나는 곳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 우리는 교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 이것은 다음 교환으로 이어집니다 - 우리의 예배의 교환.

로마서 1:24-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 우리는 우리를 채울 것들을 찾습니다.
- 예배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는 무언가를 숭배할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으로 만족하기를 갈망합니다. • 이것이 우상 숭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 우리는 나무 조각상이나 대리석 조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에너지...자원...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숭배합니다. • 자동차, 집, 직업, 정체성, 관계, 모든 것... 공허함을 채우기를 희망함 .
- 우리는 창조주에 대한 숭배를 피조물에 대한 숭배로 바꿉니다.
- 우리가 비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성을 위해 사실을 교환했습니다...
- 우리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신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숭배를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한 숭배로 바꿨습니다.
- 그리고 나서 바우로는 우리가 참인 것을 우리가 '느끼는' 사실과 교환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6-27

26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문화에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 삶의 많은 영역에서 무언가가 옳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도 동시에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훨씬 더 미묘하고 식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 바울은 이것의 가장 복잡한 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느낌은 실제입니다.
- 그러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입니다.
- 그러나 감정은 현실적이고 복잡합니다.
-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것과 옳다고 느끼는 것 사이의 경계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상황에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우리는 옳다고 느끼는 것과 옳은 것을 교환합니다.
- 우리의 감정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혼동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감정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그것이 옳다고 느꼈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진실인 것과 진실인 것을 교환합니다.

- 우리는 진실을 억누릅니다.
- 바울은 세 번의 교환이 있었고 세 번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세 번째로 28절에서:

로마서 1: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 주변의 문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로마서 1:29-32

29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30증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32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 이 목록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그 목록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 바울은 경기장을 평준화합니다.
- 한 단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일부입니다.
-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 바울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 “당신은 - 문화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만큼 - 당신은 틀렸습니다.”

- “인간은 부서졌습니다.”
- “인류는 잘못되었습니다.”

- 질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바울은 여기서 그의 편지를 끝내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멈추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너무 망가져서 우리의 상처를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틀렸을 때도 옳다고 느낍니다.
- 델러스 윌라드(Dallas Willard)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꾸로 날아가고 있으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상태, 심지어 우리의 잘못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은총과 용서와 화평 이 확장 됩니다.
-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 우리가 부서짐을 인정할 때 온전함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 이것이 제가 친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일을 한 구세주가 있습니다.